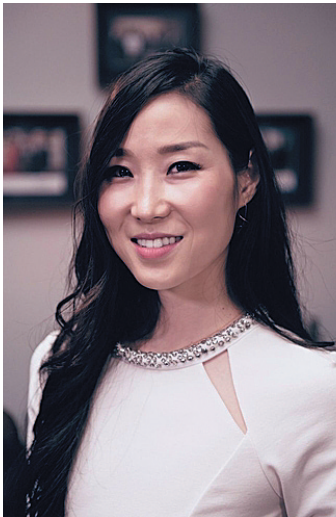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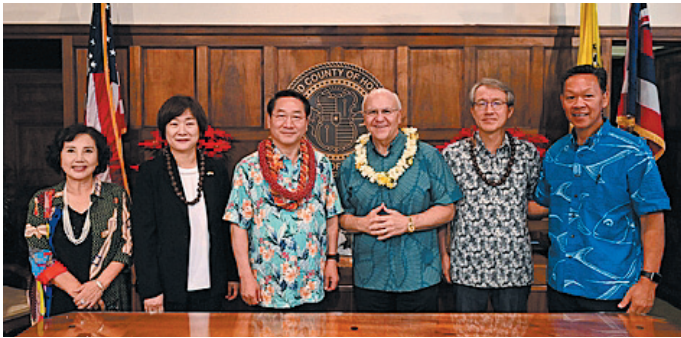




특집 \_ 미 하와이서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식... 호놀룰루시 '인천의 날' 선포  
기획 \_ 세계 각 지역 한인회 신임 회장 잇따라 선출... 새해부터 봉사  
화제 \_ 미국 첫 한인 부지사에 뽑힌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



#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신년사



**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계는 코로나19의 기세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경제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 등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해 온 것처럼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내년에는 우리 모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식화했으며, 관련 정부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로 향후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재외동포재단을 성원해주신 동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단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에는 세계한상대회가 해외(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최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 만큼 우리 한상들도 인류 공영을 위해 기여하는 세계적 한상으로 발돋움할 때가 됐습니다. 더불어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건립 예정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도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포사회의 세대교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이제 차세대 교육은 재외동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됐습니다.

K-POP, K-FOOD, K-BEAUTY 등 아름다운 한류 문화와 한류 산업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우리 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어교육의 확산과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야말로 글로벌 코리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좀처럼 화해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분단과 내부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인류평화와 공영을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분열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모두 관용과 사랑으로 극한 대립을 지양하고 상생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저희 재단은 앞으로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 02 권두언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신년사
- 04 특집      미 하와이서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식... 호놀룰루시 '인천의 날' 선포
- 06 기획      세계 각 지역 한인회 신임 회장 잇따라 선출... 새해부터 봉사
- 08 화제      미국 첫 한인 부지사에 뽑힌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
- 10 한민족 공감      주일한국문화원서 '50년 한국 사랑' 일본 사진작가 후지모토 작품전
- 12 글로벌 코리아      첫 한인 여성 미국 어바인 시의원, 부시장에도 재선  
재독 작곡가 박영희 씨, 한인 첫 독일음악위원회 명예회원에 위촉  
'다리 어워드' 올해의 인물에 드라마 '파친코' 각색한 허수진 작가
- 14 유공 동포      '재미동포 이철수 씨 사건 무죄 변론'... 유재건 전 의원 별세
- 15 주목! 차세대      미 한인 1.5세 한나 김,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태계 고문 맡아
- 16 지구촌 통신원      K팝과 함께 '해피 뉴 이어'... 3년 만에 제 모습 찾은 뉴욕 신년맞이
- 18 동포소식      '고석화 월드옥타 명예회장, 매년 10만 달러 기부 18년째 계속' 외
- 20 문화유산      '삼국 격전의 현장' 단양 온달산성
-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2023년도 예산 확정' 외
- 24 동포 캘린더      '러시아 사할린주한인협회장에 오진하 고문 당선' 외
- 25 재단공지      '2023년 국내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 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 하와이서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식... 호놀룰루시 ‘인천의 날’ 선포

## 호놀룰루 시장 “지역 발전에 기여한 한인들 존경”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가 국내 최초 해외 이민단의 도착지인 미국 하와이주에서 열렸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2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하와이시어터에서 이민 120주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열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 릭 블랭지아르디 호놀룰루 시장과 현지 교민 등 1천300여 명이 참석했다.

블랭지아르디 시장은 이날 “이곳에 사는 5만 5천여 명의 한인들이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호놀룰루시는 오늘 12월 22일을 ‘인천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우리 동포들은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로 한인사회를 일궈왔고 이들의 노력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천은 더 큰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한인 최초로 주부지사로 선출된 루크 부지사도 무대에 올라 이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는 “120년 전인 1902년 1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한 한국인들이 여기에 왔고 대부분은 인천 출신이었다고 한다”며 “인천이 이런 역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민 1.5세대인데 저보다 먼저 왔던 1세대 이민자들은 매우 힘든 일을 계속해왔다”며 “그들의 노력으로 저는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하와이 주지사 “아내와 함께 인천 꼭 방문하겠다”

이날 인천시립무용단은 8개 작품으로 구성된 한국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면서 현지 교민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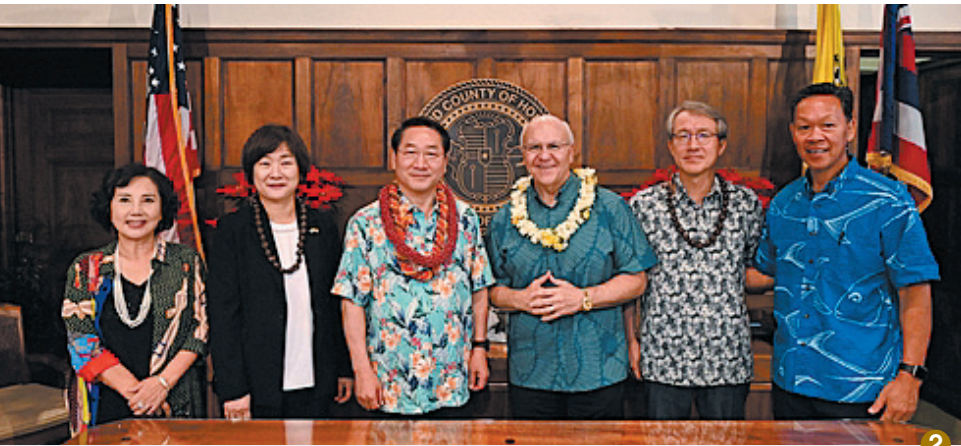


이날 오전 유 시장을 만난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민 120주년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면서 “향후 아내와 함께 꼭 인천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 전인 12월 20일 오후 호놀룰루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만찬에서는 현지 동포들이 새로운 터전을 일군 역사에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이날 만찬은 인천시와 현지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에서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출발한 한인 최초 이민단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하와이로 향한 한인은 7천400여 명에 달했다. 초기 이민자들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삶의 터전을 개척했다.

현지 한인들은 이민 1세대의 헌신 덕분에 한인사회가 지금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1979년 하와이에 이민을 한 변희장(67) 씨는 “앞서 하와이에 온 분들이 일궈 놓은 터전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은 맨땅을 일구면서 한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하와이시어터에서 작년 12월 22일 열린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식.
2. 유정복 인천시장(왼쪽에서 3번째)과 릭 블랭지야르디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 시장(왼쪽에서 4번째)이 작년 12월 21일 호놀룰루 시청에서 만나 교류·협력 강화를 약속한 뒤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 지난해 12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만찬
4. 지난해 12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시에서 열린 사진전 '제물포에서 포와로, 다시 인천으로' 개막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2

이곳 한인 이민자의 후손 중에는 루크 부지사 외에도 해리 김 전 하와이 카운티 시장, 고(故) 로널드 문(한국명 문대양) 전 하와이주 대법원장 등 지도층 인사가 많다. 이들은 모두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로 해당 직위에 올라 한인의 위상을 높였다.

### 한인 이민사 보여주는 사진전·미술전도 열려

같은 날 호놀룰루 시내에서는 한인 이민사를 보여주는 사진전 '제물포에서 포와로, 다시 인천으로'도 함께 개최돼 이민 12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인천시가 주최한 이 사진전에는 최초 한인 이민단의 여정 등 이민사와 관련한 사진·영상 100여 점이 전시됐다.

또 12월 15일부터 호놀룰루 하와이 다운타운 아트센터에서는 한국미술협회 인천시지회와 하와이 한인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인천·하와이 디아스포라 미술국제교류전'도 열렸다. 두 도시 미술작가들은 한인 이민 역사를 되새기고 문화적 다양성·포용성을 토대로 교류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교류전을 기획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한인 이민단의 하와이 도착 120주년에 때맞춰 하와이 한인사회 독립운동과 통합을 이끈 안현경, 이원순 선생을 2023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1881년 서울에서 태어난 안 선생은 1905년 하와이 노동 이민에 응모해 그해 5월 하와이에 도착했다.

1909년 4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와히아 와이방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1910년 7월 하와이 각 지방대표와 함께 일왕에게 일본의 한국 침략·강점에 항의하는 전보문을 발송했다. 1913년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하와이에 정착해 출판, 종교 및 교육사업을 펼치자 그를 도와 국문 잡지인 '태평양잡지'와 '한인교회보'를 발행하는 등 한인사회의 통합과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1893년 서울 출생인 이 선생은 1914년 보성전문학교 졸업 후 하와이로 망명했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 출판, 외교, 민족교육 운동 등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1919년 결성된 대조선독립단에 합류했다. 이승만 중심의 대한인동지회에 가입해 외교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힘썼고, 동지회의 기관지 역할을 한 '태평양주보'의 주필을 맡아 항일정신을 고취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장**



3



4

# 세계 각 지역 한인회 신임 회장 잇따라 선출... 새해부터 봉사

미국 하와이 서대영 · 샌프란시스코 김한일 · 로스앤젤레스 제임스 안 씨

**세**계 각 지역 한인회가 지난해 말 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잇따라 선출했다. 미국에서는 하와이주 서대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김한일 · 로스앤젤레스(LA) 제임스 안 · 오렌지카운티 조봉남, 워싱턴주 터코마 이석창,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주 제임스 김(한국명 김성중),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권정희 씨가 각각 뽑혔다고 현지 동포 매체들이 전했다. 이들 한인회장은 2023년 1월 1일 들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제25대 하와이 한인회 서대영 회장은 대전 출신으로 중학교까지 마친 뒤 하와이에 이주한 1.5세대. 하와이 주립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된 후 20년 넘게 활동하다 한인회장이 됐다. 서 신임 회장은 “젊어지는 한인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32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김한일 신임 회장은 미국에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알리기 활동을 펼치는 ‘김진덕 · 정경식재단’의 대표다. 이 재단은 한인사회에서 기부와 봉사에 앞장선 김 회장 부모의 유산으로 5남매가 뜻을 모아 세웠다. 17세 때 이민한 1.5세인 그는 실리콘밸리서 대형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 의사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건립에 100만 달러(약 12억8천만 원)를 기부한 바 있다. 그는 “한인을 위한 한인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단독 출마한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연임해 새해 들어 36대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조봉남 회장은 현지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주한인재단 회장을 지냈다. 오렌지카운티는 세계한상대회의 첫 해외 개최지로 선정돼 올해 10월 행사가 열린다. 조 신임 회장은 “한인 영 김, 미

셸 스틸 박 연방하원 의원의 지역구인 우리 도시는 한인 인구가 30만 명에 달한다”며 “LA 총영사관까지 가는 길이 멀어 지역 한인을 위해 영사출장소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터코마 이석창 · 필라델피아 제임스 김 · 디트로이트 권정희 씨

터코마 한인회 이석창 회장은 2대 회장을 지낸 아버지(고 이명규)에 이어 봉사에 나섰다.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한 이 신임 회장은 “한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재필 박사가 활동했던 도시 필라델피아의 한인회 제임스 김 회장은 오랫동안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한인들과 가깝게 지냈다. 한인회 이사였던 그는 “한인들의 친목, 화합,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40대 디트로이트 한인회 권정희 회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상명여대를 졸업하고 오클라호마대에 유학하러 갔다가 미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미시간으로 이주했다. 코메리카 은행에서 23년간 일하다 플래그스타 은행에 스카우트된 그는 현재 부사장 겸 규정 준수 운영 수석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현지 한인회 부회장을 지냈고, 미주한미여성회총연합회 회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 중국 신영무 · 말레이시아 김종화 · 싱가포르 박재용 · 몽골 박호선 씨

앞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한인회도 지난해 말 총회를 열어 신임 한인회장을 뽑았다. 이 지역에는 신영무, 김종화, 박재용, 박호선 씨가 각각 당선됐다.

중국 내 67개 도시의 한인회와 6개 지역연합회를 대표하는 중국한국인회 총연합회 제12대 회장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신영무 씨는 장수성 엔지니어에서 자동차 부품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신 회장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며 소감을 밝히면서 ‘협력 상생 위기 극복’,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한국학교 예산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말레이시아 김종화 회장은 현지 한인회 부회장과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을



1



2



3

1. 서대영 미국 하와이 ·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 제임스 안 로스앤젤레스 · 조봉남 오렌지카운티 신임 한인회장(이하 사진 왼쪽부터)
2. 이석창 미국 터코마 · 제임스 김 필라델피아 · 권정희 디트로이트 · 신영무 중국 신임 한인회장
3. 김종화 말레이시아 · 박재용 싱가포르 · 박호선 몽골 신임 한인회장

지냈다. 1999년 (주)대우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그만두고 정착해 무역회사인 에버캠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2년간 ‘더 나은 한인회’, ‘사랑 받는 일등 한인회’라는 기치 아래 불우 한인 돕기, 사이버 한인회관 활용, 한인 2세들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한인 역사서 발간 등을 공약했다.

박재용 싱가포르 한인회장은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엔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이사, 세계한인무역협회(월

드옥타) 싱가포르지회 차세대 위원장과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몽골한인회 박호선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할 일을 하는 한인회를 만들어 몽골 한인사회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 미국 첫 한인 부지사에 뽑힌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 언론 인터뷰서 “한인 정치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



**지**난해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실비아 장 루크(55·한국명 장은정) 하와이주 부지사는 12월 22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보다 나은 삶을 원했던 바람이 저와 같은 이민자들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와이주 민주당 부지사 후보로 나섰던 그는 20만 6천479표(67.22%)를 얻어 세아올라투파이 공화당 부지사 후보(10만 707표)를 압도적 표 차로 눌렀다. 부지사 취임식은 지난해 12월 5일 하와이 닐 플레이스텔 센터 아레나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태어나 10살 때 하와이에 가족과 함께 이민한 루크 부지사는 1998년 제26지구에서 주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뒤 2013년까지 내리 승리했다. 이후 제25지구로 지역구를 옮겨 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하와이는 120년 전인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

포항에서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떠난 최초 한인 이민단 121명의 도착지였다는 점에서 그의 한인 부지사 당선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루크 부지사는 지난 24년간 주 하원에서 일하면서 부의장·전쟁대비위원장·재무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인 해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에서 그를 직접 인터뷰했다. 다음은 루크 부지사와의 일문일답.

## 미국에서 한인 최초로 부지사로 선출된 소감은.

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10년간 재무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주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으며 저의 경험은 부지사로 활동하면서 계속해 변화를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저는 3번째 여성 하와이주 부지사이자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부지사로 선출된 한인 정치인이라는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 이민자로서 하와이에서 정치인이 된 배경은.

아버지가 아시아 음식 등을 수출입 하는 일을 하면서 먼저 하와이에 왔고





이후 1977년 가족이 모두 함께 하와이에 오게 됐다.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하와이주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1998년 하원의원 출마해 당선됐다. 변호사로서 활동은 부지사로 출마하면서 올해 그만뒀다.

### 한인 이민 120주년의 의미는.

저는 한인들이 하와이에 이민을 온 지 100주년이 되는 때에 운이 좋게도 입법부에서 활동하게 됐다. 한민족은 하와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공헌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와이에 이민을 온 한인들의 이야기는 섬 공동체의 다양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 문화는 하와이에 깊숙이 들어왔고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나는 이런 중요한 이민의 역사를 하와이에서 열리는 120주년 행사에서 기념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 하와이 한인들의 성공 사례와 이유를 설명한다면.

미국 한인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하와이주 대법원장에 올랐던 로널드 문(한국명 문대양) 등 유명한 한인들이 많았다. 한인들은 하와이에서 교육감과

경찰서장 등을 지냈고 몇몇은 주 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저는 하와이에서 성공한 한인 중 1명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인 이민자들은 다른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원했다. 이런 동기가 저와 같은 이민자들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본다. 많은 하와이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좋은 기회를 찾아 호놀룰루에 왔다.

### 오늘날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저는 해외에 진출한 한인 정치인 그룹의 일원이다. 우리 그룹은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한국과 현재 거주 중인 국가 간의 관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한국의 외교적 관계에 매우 큰 관심이 있으며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효과 등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저는 한국처럼 하와이에 고속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고속 통신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등에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참\]](#)

1. 지난해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목에 화환을 두른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 당선인
2. 지난해 12월 5일 취임식 무대에 선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왼쪽), 사진 가운데 성경을 들고 서 있는 이는 그의 남편 마이클 루크다.
- 3~4. 언론 인터뷰하는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

# 주일한국문화원서 ‘50년 한국 사랑’ 일본 사진작가 후지모토 작품전

## 피맛골 · 김장 담그기 등 한국 식문화 사진 70여 점 전시

“**한**국 사회는 개발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정겨운 식문화입니다. 이를 사진에 담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 소재 주일한국문화원 1층 갤러리 M1에서 ‘한국의 식문화 기행’이란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 후지모토 다쿠미(藤本 巧·73) 씨는 한국을 사랑해 지난 50년간 한국 풍경과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온 일본 사진작가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의 재래시장, 시골 장터처럼 지금은 사라지거나 잊히고 있는 먹거리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12월 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열린 사진전에서는 단양, 목포, 통영, 평창 등의 시장·식당·포장마차 등과 김장하기 등 일상의 식문화를 담은 사진 70여 점이 공개됐다. 전시 기간에는 한국의 대표적 발효식품인 고추장 만들기와 보자기 포장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독학으로 카메라를 배운 후지모토 작가는 21살 때 카메라를 들

고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 민에 운동을 펼쳤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한국 산림녹화와 도자기 연구에 매진했던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를 존경했던 아버지 덕분에 내 이름에 다쿠미가 들어가 있다”고 소개했다.

### 지금까지 100여 차례 방한, 풍경과 일상 촬영

후지모토 작가는 “첫 방한 때 아사카와 다쿠미의 발자취를 좇아 전국을 돌면서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의 인정에 푹 빠졌고 그때부터 한국사랑 외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반세기 간 100여 차례 방한해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후지모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서울 종로의 피맛골 풍경도 소개했다. 그는 “피맛골은 ‘말을 피하는 골목’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말이나 가마를 타던 고관대작이나 상류계층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던 서민들이 이용하던 뒷골목에서 유래한 지명”이라며 “이 곳에는 다양한 서민을 위한 식당 등이 즐비했는데 개발에 밀려서





지금은 사라졌고 안내판만 남아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후지모토 작가는 "50년을 촬영해오다 보니 사라지는 한국의 풍경이 많다"며 "지금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꾸준히 촬영해왔는데 어느새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된 셈"이라고 회고했다.

### 2011년에는 자신의 사진 4만 6천여 점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

그는 2011년 한국의 풍경과 일상이 담긴 필름과 디지털 사진 등 4만 6천377점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해 한국에서도 일본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줬다. 또한 일제강점기 소록도 병원장으로 일하면서 한센인 치료에 헌신한 일본인 하나이젠키치의 흔적 등을 취재한 사진으로 2020년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주관하는 '제39회 도문겐상'을 받았다.

재일대한민국민단 기관지인 민단신문에 '조선통신사 선린우호의 경로를 걷다'를 연재하기도 한 후지모토 씨는 "한일 양국은 일제 강점기 등 안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더 오랜 세월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양국 교류에 작은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힘닿을 때까지 촬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지모토 작가가 사랑하는 또 하나의 한국 식문화 공간은 부산 자갈치 시장이다. 활력 넘치는 자갈치 시장에서 사진작가로서 에너지와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주일한국문화원은 앞서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여 간 후지모토 작가의 사진 작품과 함께 한국 식문화를 소개하는 '보고 느끼는 한국 식문화전'을 열었다.

1970년대부터 자갈치 시장을 촬영해온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갈치 시장도 예전과 달리 큰 건물이 들어섰고 1970년대의 분위기는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참]**

1. 일본 사진작가 후지모토 다쿠미 씨가 찍은 1970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 풍경
2. 후지모토 다쿠미 작가가 찍은 1970년 경상도 시골 마을 풍경
3. 지난 50년간 한국의 풍경과 일상을 카메라에 담은 일본 사진작가 후지모토 다쿠미 씨
4. 올해 1월 31일까지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린 '한국 식문화 기행' 사진전의 안내 포스터
5. 후지모토 다쿠미 작가가 지난해 4월 14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첫 한인 여성 미국 어바인 시의원, 부시장에도 재선 태미 김, 최근 1년 임기 시작… “성실히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시의원에 당선됐던 태미 김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중간 선거에서 재선한 뒤 최근 부시장에도 연 임됐다.

현지 동포 매체들은 1월 19일 “김 시의원은 최근 부시장에 선출돼 1년 임기를 시작했다”며 “이로써 그는 2020년 12월 시의원 취임과 동시에 부시장을 맡은 데 이어 두 번째 부시장직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어바인시는 시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부시장은 시의원들이 투표로 뽑는다. 김 부시장은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 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한 김 부시장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한인 비영리단체 중 하나인 한미문화센터 대표를 맡았다.

차세대 한인 뿌리 교육을 위해 어바인 세종학당 설립에 기여했고, 학당장을 맡기도 한 그는 2020년 어바인 시의원에 출마해 한인 여성 처음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어바인시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해 선포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의 연합체인 가주도시연맹(CLC)의 첫 한인 이사이면서 남가주정부협회(SCAG) 이사도 맡고 있다.

## 재독 작곡가 박영희 씨, 한인 첫 독일음악위원회 명예회원에 위촉 독일 음악계 기여 인정… 지난해 12월 77세 생일 음악회서 임명돼

재독 한인 작곡가 박영희(77) 씨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독일음악위원회(Deutscher Musikrat · DMR) 명예회원에 위촉됐다.

켈른대에서 강의하는 노유경 박사와 DMR 홈페이지에 따르면, 독일음악위원회 회원들은 지난해 말 베를린에서 독일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박 씨를 명예회원에 임명했다.

1953년 설립된 DMR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후원을 받는 독일 내 문화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관이다. DMR의 명예회원은 상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된다.

명예회원은 이번에 위촉된 박 작곡가를 포함해 게르하르트 바움 전 독일 내무부장관, 음악 잡지인 노이에 뮤직 차이퉁의 테오 가이슬러, ‘윤이상 지킴이’로 불리는 발터 볼프강 슈파러 국제윤이상협회 회장 등 총 50명이다.

명예회원 증명서 전달식은 지난해 12월 3일(현지시간) 박 작곡가가 거주하



는 브레멘의 플란타게13 무대에서 진행됐다. 그의 제자와 친구들이 마련한 77세 생일 기념 '포르레(초상화) 음악회'에서 올리케 리트케 DMR 부회장이 증명서를 직접 전했다.

박 작곡가는 청중들 앞에서 "내 마음을 오랫동안 작곡했다. 마음으로 음악을 듣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이 음악회에 참석한 노유경 박사가 전했다.

청주 출신인 박 씨는 서울대 대학원 졸업 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독일학술교류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1974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1980년 꿈의 무대인 독일 도나우에싱겐 현대음악제에 여성 최초로 초청을 받았고, 1994년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여성 최초로 음악대학 정교수(브레멘 국립예술대)가 됐다. 이 대학에서 부총장까지 지내다 2011년 은퇴했다.

2020년 여성이면서 동양인 최초로 6년 주기로 수여하는 독일 예술계 최고 권위의 '베를린 예술대상'을 받았다. 유럽 지역에서는 그가 '제2의 윤이상' 위치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독일한국문화원은 그의 이름을 딴 '국제 박영희 작곡상'을 제정했다.



## ‘다리 어워드’ 올해의 인물에 드라마 ‘파친코’ 각색한 허수진 작가 LA 한국문화원서 지난해 12월 시상식

제17회 ‘다리 어워드’ 올해의 인물에 애플TV+ 시리즈 ‘파친코’의 총괄 프로듀서 겸 각색을 담당한 허수진(미국명 수 허) 작가가 선정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LA 센터(센터장 주성호)는 ‘2022 다리 어워드’(Dari Awards) 올해의 인물로 허 작가를 선정했고, 한국문화원에서 시상식을 열었다고 지난해 12월 12일 밝혔다.

허 작가는 사정상 온라인으로 시상식에 참여해 소감을 밝혔다. 다리는 콘텐츠 산업 교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그는 재미작가 이민진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파친코를 제작한 미국 스트리밍 플랫폼 애플TV+의 동명 드라마를 각색한 작가다. 이 드라마는 미국영화연구소(AFI)의 ‘올해의 10대 TV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드라마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과 일본, 미국을 오가는 한국계 이민 가족을 그리고 있다.

다리 어워드 ‘올해의 기업’에는 웹툰 엔터테인먼트(WEBTOON Entertainment), ‘베스트 비즈니스 파트너십’에는 라이브 네이션(Live Nation)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창**



# ‘재미동포 이철수 씨 사건 무죄 변론’ ...

## 유재건 전 의원 별세

2009년 사건 기록 담은 ‘함께 부르는 노래’ 출간

**미**국 유학 중 살인 누명을 쓴 재미교포 이철수 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 낸 혜천(惠泉) 유재건(柳在乾)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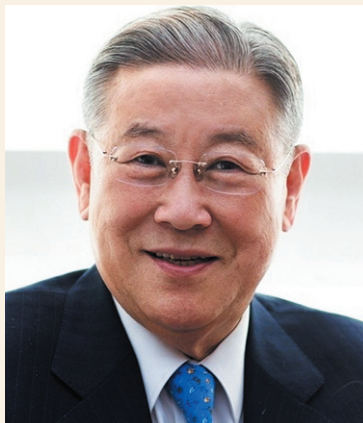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연세대 정외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977년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1989년 미국 연방정부 지역사회변호사로 일했고, 1982~199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고인이 이철수 씨 사건에 뛰어든 것은 변호사 시험공부를 하던 1977년. 이 씨는 1973년 6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강간 간부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1973년 6월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1977년 자신을 살해하려는 백인 강단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별도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아시안청소년그룹이 그의 무죄 운동을 펼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새크라멘토 유니언지’ 기자였던 이경원 씨가 당시 고인과 함께 진상을 파헤치면서 사건은 전기를 맞았다.

고인은 이 씨를 면담한 뒤 1차 사건이 잘못됐음을 확신한 뒤 1977년 ‘이철수 구명위원회’를 결성했고, 이때부터 재판 서류 등을 살살이 뒤져 이 씨가 7가지 위헌적 재판 절차의 희생양이었음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이경원 씨의 폭로 보도가 이어지고 일본인 3세 야마다 란코 씨 등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커뮤니티가 대



고(故) 유재건 전 국회의원



미국에서 강간 살해 혐의로 체포돼 사형이 선고됐던 이철수 씨(왼쪽)와 그의 무죄를 믿고 6년여간 구명운동을 펼쳤던 유재건 전 의원이 2007년 4월 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17년 만에 다시 만나는 모습. 오른쪽은 당시 사건을 취재한 변홍진 전 미주한국일보 편집국장.

대적으로 가세한 데다, 유명한 미국 인권변호사 레너드 와인글래스 씨가 무료 변론을 맡고 이 씨와 비슷한 처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한인들이 성금 20만 달러를 모으는 등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1982년 9월 3일 마침내 무죄 평결이 내려지고 제2의 사건도 1983년 사형판결을 무효로 함으로써 이 씨는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소수민족 연대 승리로 기록됐다. 고인은 2009년 이 사건의 기록을 담은 책 ‘함께 부르는 노래’를 펴냈다.

고인은 1990년 귀국한 뒤 1993년까지는 ‘MBC 시사 토론’, 1993~1995년에는 ‘KBS 1TV 심야토론’을 진행했다. 1995년 경기고 동기생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의 권유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고 이후 원외 부총재로 임명됐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구 출마가 유력했지만, 지역구(서울 성북갑) 출마해 당선된 뒤 1997~1999년 총재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김대중 총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지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선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했고, 2003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3선 의원이 됐다. 2009년에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총재와 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연세대 1학년 때인 1956년 소련군이 헝가리를 침공하자 대학교 친구인 이만섭(1932~2015) 전 국회의장과 함께 학도 의용군을 결성한 공로로 2006년 헝가리 십자중훈장을 받았다. **창**

# 미 한인 1.5세 한나 김,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태계 고문 맡아

보건복지부 차관보서 정책 조언자로... “한미관계 강화 기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시아태평양계 정책고문에 한인 1.5세 한나 김(한국명 김예진·39) 전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김 정책고문은 “새해 1월 2일(현지시간)부터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태계 정책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한국 언론에 알려졌다.

그는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AANHPI) 커뮤니티와 협력해 대통령의 의제를 진전시키고, AANHPI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고문은 이어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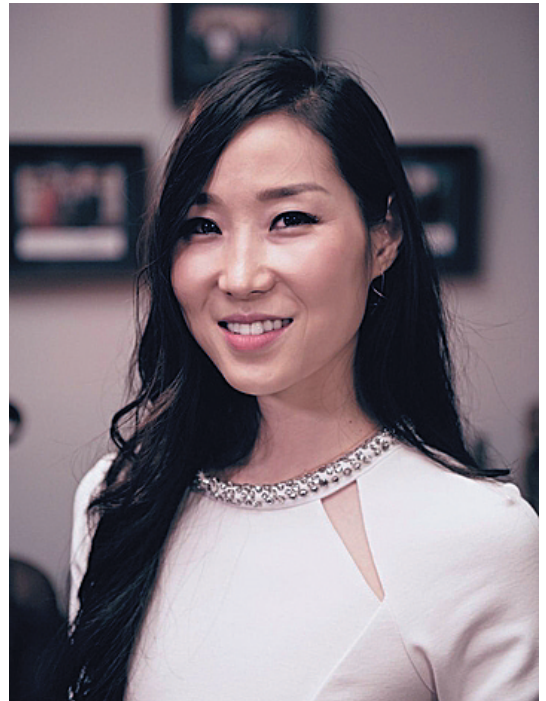
현재 미국에는 2천400만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과 160만 명의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들이 살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는 지난 10년간 35% 이상 증가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1년간 미국 보건복지부 공보관실에서 차관보를 지냈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코로나19 공교육 캠페인 전략 자문관을 맡았었다. 2009~2016년 친한파 의원이었던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했던 김 정책고문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감사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고, 정전협정일(7월 27일)에 즈음해 희생자 추모와 평화 기원 촛불 문화제를 주최하기 위해 한인 1.5세 청년들을 모아 ‘리멤버 727’을 결성하기도 했다.

2017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세계 26개국을 돌며 한국전 참전용사 200여 명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2018년에는 미국 50개 주를 돌면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만나는가 하면 70개 도시에 세워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6살 때 미국에 이민한 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초·중·고교를 마친 뒤 다시 귀국해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교(UCLA)에서 전문경영인 과정을 수료하고 조지워싱턴 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태계 정책고문 맡은 한나 김





## K팝과 함께 ‘해피 뉴 이어’ ... 3년 만에 제 모습 찾은 뉴욕 신년맞이 코로나19 규제 사라지자 빗속에서도 축제객 100만여 명 운집

**미**국 뉴욕의 명물인 신년맞이 축제가 3년 만에 완전히 제모습을 되찾았다. K팝 스타들도 축하 무대에 잇따라 올라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 나지 못했던 뉴욕시 타임스퀘어의 ‘크리스털 볼드룸’ 행사가 올해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정상적으로 개최됐다.

2022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부터 짙은 안개와 함께 간간히 비가 흩뿌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년 행사를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 100만여 명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다. 전주 후반 크리스마스 연휴를 덮쳤던 혹한이 물러가고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른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축제객들의 행렬이 이른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 타임스퀘어 일대를 가득 메웠다. 저녁 8시 전후로 빗줄기가 굵어지자 이들은 비옷을 꺼내입거나 방수 재킷에 모자를 쓰고 자리를 지켰다.

뉴욕경찰(NYPD)이 미드타운 중심가 곳곳의 교통을 통제하고 정해진 출입구에서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쳤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규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마지막 날 의사, 간호사, 배달원 등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만 초청해 아예 비공개 행사를 한 것이나 작년 말일 입장객 수를 1만 5천 명으로 제한하면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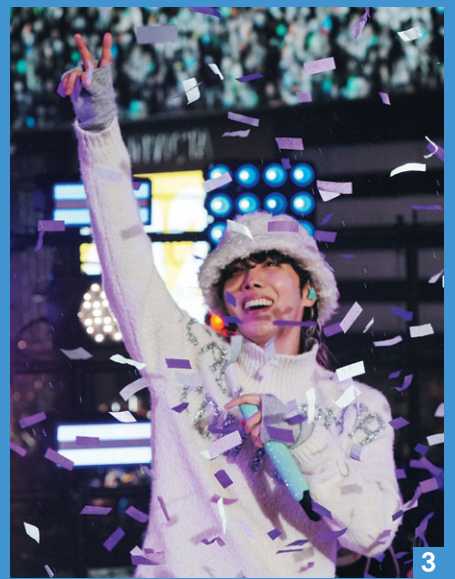
### BTS 소속 제이홉, 타임스퀘어 무대에 올라... TXT도 LA서 새해맞이 공연

신년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달군 초호화 출연진에는 K팝 가수가 2팀이나 포함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프로그램인 ABC방송의 ‘딕 클락스 뉴 이어스 로킨 이브’에 3년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J-Hope)이 대표적이다.





2



3

래퍼 겸 싱어송라이터인 축제 진행자 라이언 스크레스트의 소개로 타임스퀘어 메인 무대에 선 제이홉은 더욱 거세진 빔속에서 ‘= (이퀄사인)’, ‘치킨누들수프’, ‘버터’를 연속으로 불러 뉴욕커들을 열광시켰다.

팬들은 초록색 막대풍선을 흔들거나 ‘우리는 너를 사랑해’라는 한글 팻말을 높이 들며 이제는 팀이 아닌 솔로로 뉴욕에 온 제이홉을 반겼다. 한국인 가수가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무대에 오른 것은 2012년 싸이, 2019년 BTS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제이홉에 앞서 남성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는 같은 프로그램의 로스앤젤레스 디즈니랜드 무대에 올라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 여러 무대를 원격으로 오가며 라이브로 진행됐다.

### ‘올드 랭 사인’ · ‘뉴욕 뉴욕’ 올려 퍼지는 가운데 축제객들 “해피 뉴 이어”

ABC를 비롯한 미 주요 방송사들의 신년맞이 프로그램들에는 듀란듀란, 뉴에디션, 잭스, 위즈 칼리파, 핼리 베일리, 엘리 굴딩, 어셔, 에이바 맥스, 패티 라벨 등 유명 팝스타들이 총출동했다.

준비된 공연이 모두 끝나자 2023년을 1분 남기고 6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원 타임스퀘어’ 빌딩 26층 꼭대기에 설치된 무게 5.4t, 지름 3.7m의 초대형 크리스탈 볼이 카운트다운에 맞춰 천천히 하강하자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워터포드사의 크리스탈 삼각 패널 2천600여 개와 발광다이오드(LED) 3만 2천여 개로 장식된 크리스탈 볼이 끝까지 내려온 순간 ‘2022’라고 적힌 전광판이 ‘2023’으로 바뀌고 1t 분량의 색종이 조각이 상공을 가득 뒤덮었다.

‘올드 랭 사인’과 프랭크 시나트라와 ‘뉴욕 뉴욕’이 차례로 올려 퍼지는 가운데 축제객들은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며 서로 포옹하거나 키스하며 새해 첫날을 반겼다. **창**

강건택 연합뉴스 미국 뉴욕 특파원



4



5

1. 지난해 12월 31일 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운집한 신년맞이 축제객들
2. 굵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축제객들 통제하는 경찰(왼쪽)
3.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신년맞이 축제의 메인 무대에 오른 BTS 소속 제이홉
4.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신년맞이 축제의 메인 무대에 올라 진행자 라이언 스크레스트(오른쪽)와 관객 바라보는 BTS 소속 제이홉
5. 2023년 새해 시작 알리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시계

## 고석화 월드옥타 명예회장, 매년 10만 달러 기부 18년째 계속 비영리단체 20곳에 지급... 2004년 500만 달러 출연 '고선재단' 설립

미주 한인은행을 대표하는 '뱅크오브호프' 명예회장이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명예회장인 고석화(77) 씨가 지난해에도 10만 달러(약 1억3천만 원)를 기부했다.

고 씨는 2004년 사재 500만 달러(약 64억6천700만 원)를 출연해 '고선재단'을 세운 이래 18년째 매년 10만 달러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3세계를 지원하는 단체를 포함해 20곳에 최소 1천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각각 전달했다.

고 씨는 작년 12월 2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제3세계 국가를 지원하는 단체를 새롭게 선정했다"며 "우리의 기부금이 생존을 위협받는 제3세계 국가의 소외계층에 작지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 할리우드의 거물 손 펜이 설립한 긴급구호기구인 CORE (Community Organized Relief Effort)를 비롯해 제3세계 국가

를 대상으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음식과 깨끗한 물, 전기 등을 공급해주는 특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교황청 해외선교연구소(PIME) 미션너리스, 분쟁·재난·빈곤을 겪은 어린이들이 겪는 트라우마의 극복을 돕는 월드와이드 오르판스(WWO) 등이 기부 대상이다.

부산 출신인 고 씨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신생 철강회사였던 연합철강에 입사해 영업과 무역을 배웠다. 입사 3년 차인 1971년 미국에 이민해 철강회사인 '퍼시픽스틸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회고록 '고독한 도전, 아메리칸드림을 넘어' (재능교육)를 출간했다.



고석화 월드옥타 명예회장 겸 미국 한인은행 '뱅크오브호프' 명예회장

## 미주 한인 120년사 다룬 단편영화 '하와이 연가' 인천서 상영 하와이 동포 이진영 감독 영화... 국제 다큐영화제에 출품 계획

미주 한인 이민 120년 역사를 담은 음악 단편 영화 '하와이 연가-그들의 발자취' (Songs of Love from Hawaii-their Footsteps)가 관심을 끌고 있다.

13분 분량의 이 영화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인천시립박물관(관장 유동현) 2층 기획전시실에서 상영되고 있다. 이 박물관은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편도'의 일환으로 이 영화를 올해 2월 5일까지 선보인다.

유동현 관장은 "영화를 본 관람객들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자주 본다"며 "이민 120년 역사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깊이 교감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상영되는 단편영화 '하와이 연가'

'하와이 연가-그들의 발자취'는 하와이 현지 동포 이진영 감독이 만들었다. 그는 앞서 미주 한인 이민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무지개 나라의 유산'도 연출했다.

이 감독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무지개 나라의 유산'을 통해 한인 이민사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기록하려 했다면 '하와이 연가'에서는 음악이라는 감성의 언어를 활용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빛나는

발자취를 기록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인천 상영 시작 전주 하와이에 도착한 한국 해군 함정에서 해군 생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사회도 열었다.

## 전 세계 한인회, 고국 농수산물 수출 지원한다

### 세한총연과 aT, 관련 업무협약 체결

전 세계 한인회가 고국의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하는데 나서기로 했다.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이하 세한총연·회장 심상만)는 지난해 11월 30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김춘진)와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확산 및 한국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한인회와 기업체가 연계해 한국 농수산품을 홍보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세한총연은 각국의 500여 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회원은 한인회장들로 구성됐다.

전 세계 한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모국과의 각종 협력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세한총연은 앞서 작년 10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

린 창립 1주년 워크숍에서 내외 동포 간 상생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심상만 회장과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인 유제헌 수석부회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전 세계 한인회 네트워크 구축 ▲한인회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활동 활성화 ▲동포 사회의 숙원사항 해소를 위한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30. (수)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왼쪽)과 김춘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확산 및 한국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한·캐나다 60주년 홍보대사에 '김씨네 편의점' 윤진희

###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김연아는 명예대사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은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홍보대사로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에 출연한 한국계 캐나다 배우 윤진희를 위촉했다고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나다 CBC방송이 제작한 '김씨네 편의점'은 지난해 종방 후 '계속 시청하게 해 달라'는 국제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인 이민자 가족을 다룬 이 시트콤에서 윤 씨는 엄마 '김영미' 역할을 맡았다.

임웅순 주캐나다 한국대사는 "캐나다에서 윤 씨가 개척한 여정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캐나다 한국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인적 교류를 상징하는 윤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부모님이 태어나고 자란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해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며 "나의 활동이 양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준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홍보대사에 위촉된 '김씨네 편의점' 윤진희

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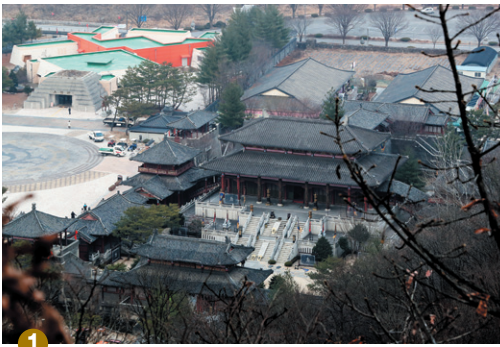
한편, 같은 날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양국 수교 60주년 명예 대사로서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피겨 여왕' 김연아를 위촉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보도자료에서 김연아가 앞으로 1년 동안 캐나다와 한국의 60년간 우정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위촉식은 전날 서울 중구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열렸다.

대사관에 따르면 김연아는 "캐나다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곳이다. 선수 시절 오랜 시간 훈련을 한 곳이기도 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곳도 바로 캐나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1963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았다.

# '삼국 격전의 현장' 단양 온달산성 원형 잘 보존... 남한강과 소백산맥 품어 경관 수려



1



2



3

1. 온달동굴, 온달전시관, 드라마세트장 등이 있는 단양 온달관광지
2. 온달산성 북쪽의 성벽 모습. 성벽 가운데 수구가 보인다.
3. 온달관광지에 있는 온달 장군 동상
4. 단양 온달산성 성벽 일부분과 남한강 일대 모습

**한**국은 '산성(山城)의 나라'라고 할 만큼 산성이 많다. 중부지역 이남에만 1천 200여 개의 산성터가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원형이 잘 남아 있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에 있는 온달산성이다.

'바보' 온달(?~590)이 전사한 곳으로 알려진 온달산성은 고구려·신라·백제 삼국이 치열한 영토 싸움을 벌였던 격전장이다. 고대 설화에 따르면, 바보로 알려진 온달은 고구려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와 결혼한 후 학문과 무예를 열심히 익혀 용맹한 장군이 됐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온달산성은 산과 강이 잘 어우러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산성에 오르면 발밑으로 푸른 남한강이 크게 휘돌아 흐른다. 위로는 소백산맥 줄기가 첩첩으로 이어진다.

단양은 예부터 경치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단양팔경'과 '제2단양팔경'이란 말이 나온 연유다. 단양팔경은 도담삼봉, 석문, 구담봉, 옥순봉, 사인암,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을 일컫는다. 제2단양팔경은 북벽, 금수산, 칠성암, 일광굴, 죽령폭포, 온달산성, 구봉팔문, 다리안산을 말한다.

삼국시대부터 영남과 경기·충청을 연결했던 고갯길인 죽령옛길, 소백산의 장엄함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소백산자락길도 빼놓을 수 없는 명승지다. 이처럼 아름다운 단양지역 중에서도 온달산성에서 바라보는 산하는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한 감동을 준다.

온달산성이 경관 조망용 시설로 지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남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남한강 남안에 바짝 붙은 낭떠러지에 산성을 짓다 보니 자연히 주변 경관이 절경을 이룬 것이다.

## 삼국, 이곳에서 생사를 걸고 각축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국경지대에 있는 남한강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다. 단양을 비롯해 충북지역은 삼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접경 지역이어서 각축전이 특히 심했다. 온달산성도 삼국이 돌아가며 점령했던 곳이다.

온달산성은 온달관광지에서 도보로 30분 가량 걸리는, 가파른 비탈길 끝자락에 있다.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을 주제로 조성된 온달관광지는 온달동굴, 온달전시관, 드라마 세트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탈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 계단이 설치돼 있어 탐방이 수월하다. 남한강이 보이는 쪽이 아닌, 길의 왼쪽은 아찔한 낭떠러지다. 나무 계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길이 매우 좁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발아래 절벽이 현기증을 일으킬 때면 1천500여 년 전 군사 요충지를 차지하기



4

위해 흘렸을 병사들의 피와 산성을 쌓느라 쏟았을 주민들의 땀이 더 애처롭게 느껴졌다. 온달산성에 이르는 가파른 길은 선인들의 삶과 죽음의 현장이었다.

튼튼하고 균형 있게 잘 만들어진 산성은 비록 군사용일지라도 미적 감성을 자극한다. 온달산성은 고대에 지어졌음에도 서쪽 구간 약 100m가 무너졌을 뿐 대체로 잘 보존돼 있다. 워낙 견고하게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두께 5~15cm 정도의 비교적 얇고, 잘 다듬어진 돌로 쌓은 성벽은 고풍스러운 멋을 풍기는 축조물이다. 성돌의 크기는 가로 70cm, 세로 40cm 정도다. 온달산성은 해발고도 427m의 산 정상에 축조된 테뮌식 석성이다. 둘레는 683m로 크지 않다. 테뮌산성은 산 정상을 둘러싼 성을 말한다.

동·남·북 쪽의 문 3개 중 동문 쪽 성벽은 지형을 따라 곡선으로 돌출돼 있는데 우리나라 고대 성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양식이다. 북문에는 성벽 일부를 바깥으로 내밀어 쌓은 치(雉)가 있다. 치는 성벽에 바짝 붙어 공격하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만들었다.

### 고구려 ‘바보’ 온달 장군의 전사지로 알려져

온달산성의 지세는 남고북저(男高北低)다. 고도가 가장 낮은 북문 쪽에는 성안의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수구(水口)가 있다. 성

안에 우물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유적 발굴단이 현재까지 찾지는 못했다.

고구려 장군 온달은 백제에 빼앗겼다가 다시 신라로 넘어간 죽령, 계림령 땅을 찾기 위해 아단성을 공격하다가 성 아래서 신라군과 싸우다 전사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다. 아단성은 서울 광나루 근처 아차산성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지금의 단양군 영춘면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학설이다. 이에 따라 영춘면에 있는 온달산성은 온달의 전사지로 여겨진다.

영춘면에는 온달 장군과 관련된 또 다른 전설이 있다. 영춘면 상리 나루는 온달을 장사지냈던 곳으로 전해진다. 장례 때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았으나 평강공주가 관을 여루만지자 비로소 관이 들렸다는 전설이다.

온달산성은 정확한 축성 연대가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 시대에는 산성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시대라면 단양은 국토의 중심부다. 내륙 깊숙이 있는 산성은 방어용 요소로서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온달산성은 다리품을 팔 가치가 충분히 있다. 온달산성은 충북 보은의 삼년산성, 경북 상주의 견훤산성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 산성으로 꼽힌다. 그중 온달산성은 주변 풍광이 멋질 뿐 아니라 산성 자체가 매우 아름답다. **창**

## 재외동포재단, 2023년도 예산 확정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사업 확대 등 재외동포 인재육성에 주력

재외동포재단의 2023년도 예산이 630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예산 중, 재외동포 사회의 세대교체 변화를 감안한 차세대 육성 예산이 7억 2천만 원 증액된 것이 특기할 만하며, 한인회 지원 등 동포사회 교류사업,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재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제주 본부 전경.

## 재외동포재단,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3천 명에게 위문품 전달

1998년부터 매년 쌀 등 생필품 전해

재외동포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30곳에 거주하는 3천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과 재단 임직원들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과 인천시 남동사할린센터 등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생필품과 영양제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건넸다.

김 이사장은 “저희의 작은 선물이 고국에서 보내는 노후에 작은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주훈춘 안산 고향마을 회장은 “고국의 따뜻한 정이 담긴 위문품에 감사하다”며 반겼다.

사할린에는 일제강점기 때 탄광과 군수 시설 현장에 강제 징용된 뒤 1945년 종전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한인이 3만여 명 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을 계기로 고국에 돌아와 인천, 안산, 파주,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을 찾아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에게 연말 위문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 남양주 등에서 살고 있다.

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 재외동포재단, 베트남 귀환다문화 자녀 지원 나선다

최대 2만여 명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재외동포재단은 한국 남성과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친정 국가로 돌아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돕는 ‘한-베 다문화 자녀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월 3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이 모두 9만 2천414건이다. 이 가운데 이혼 건수는 1만 8천324건이며 이혼한 베트남인 여성 87%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재단은 베트남으로 동반 귀국한 다문화 자녀들이 최대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으로 3~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사증 면제자이거나 1~3년의 임시 거주증을 소지한 상태다. 법적 신분이 불확실함에 따라 이들은 한국인으로서 누려야 할 건강보험이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며 베트남 정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단은 한-베 다문화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이혼 후 귀국한 여성이 많이 사는 베트남 남부 켄터시 소재 한-베 함께돌봄센터와 유엔 인권정책센터의 사업을 지원한다.

또 한-베 다문화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돌봄 사업, 법률 상담 및 구조 활동, 한글 캠프 등 한국어 교육, 한-베 자녀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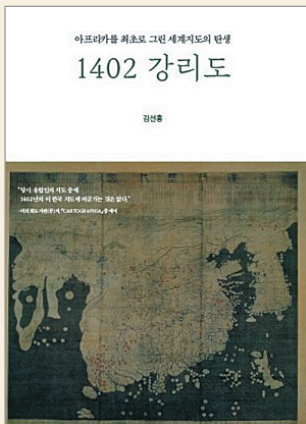
베트남 켄터시에서 열린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박항서의 축구교실’에서 박 감독(가운데 흰 셔츠 차림)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 등을 펼치는 민간단체 지원에 나선다.

재단은 코리아넷(www.korean.net)을 통해 1월 22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한-베 다문화 자녀는 베트남과 한국 양쪽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 1402 강리도

김선홍 / 네잎클로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壹疆理歷代國都之圖)는 조선 초인 1402년 문신 김사형·이무·이희가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포함해 편집한 채색 필사본 세계지도다. 이 지도는 20세기 초 일본 교토에서 재발견된 이래로 줄곧 세계학계의 찬탄과 탐구의 대상이 돼 왔다. 언어와 국가를 달리하는 집단 지성의 ‘강리도’ 탐구가 지구촌에서 오래 이어져 왔지만, 정작 지도의 모국은 외딴 섬처럼 고요하다. 고요를 깨뜨린 신간 ‘1402 강리도: 아프리카를 최초로 그린 세계지도의 탄생’은 지리학자가 아닌 전(前) 외교관 김선홍 씨가 지난 17년 동안 지도를 탐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은 새로운 눈으로 강리도를 바라볼 것을 주문하며 강리도에서 지도 이상의 의미를 길어 올린다. 이제 새로운 마음의 눈으로 이 특별한 지도를 마주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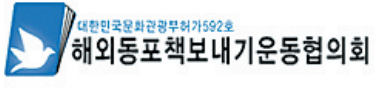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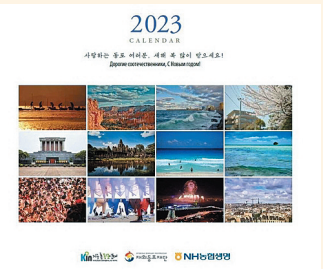


**러시아 사할린주한인협회장에 오진하 고문 당선**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에 오진하(70) 고문이 선출됐다. 현지 새고려신문에 따르면 오 신임 회장은 최근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선거에서 경쟁 후보 2명을 물리치고 당선됐다. 2011년부터 협회 고문으로 활동한 오 신임 회장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계승 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1세대는 물론 2~3세대를 위한 모국 방문과 건강검진·진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신임 회장은 부회장에 박순옥 직전 회장을 지명했다. 이르쿠츠크 공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모스크바 기업·기관 고급 지도자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탄화벽돌생산기업의 전문기술자로 입사해 39살 때 지배인(공장장)으로 승진한 뒤 15년 동안 일했다. 사할린주 두마(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활동했고, 2007년 사할린에 한국 영사출장소를 개설하는 데 역할을 했다.

**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동포에 음력 표기 우리 달력 배포**

지구촌동포연대(KIN)는 민족 명절 등 세시풍속을 지키며 살아온 러시아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음력 등이 표기된 달력을 최근 제작해 배포했다. KIN은 성금을 모아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3'이라는 이름의 달력을 3천300부 제작했다. 이 달력은 설·추석·한식 등 명절을 비롯해 '손 없는 날' 등 일상에서 쓰이는 음력과 한국 국경일을 표시했다. 우리말을 못 하는 한인 후손을 위해 러시아어 설명을 달았고, 번역과 감수는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 사할린출장소가 지원했다. 달력 제작과 배포에 재외동포재단과 NH농협생명이 후원했다.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미 시카고 등에 도서 3천권 전달**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회장 손석우)는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국립도서관과 시카고 몬테소리 공립 고등학교에 한국어로 된 어린이 도서와 역사책 등 3천 권을 보냈다. 손석우 회장은 발송식에서 “한글책은 재외동포 차세대에는 한국의 영혼”이라며 “성탄절을 맞아 작은 선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아공 거주 한인 건강상담 열려**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 상담이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남아공한인회(회장 전소영)에 따르면, 이번 한인 진료 봉사 및 건강 상담은 한국기독교사회, 로제타홀 기념사업회, 아프리카미래재단 등이 주최했다. 남아공 외에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인들도 상담 대상에 포함됐다.



**베트남 하노이한인회, '한·베트남 수교 30년사' 펴내**

베트남 하노이한인회(회장 장은숙)는 최근 '한·베트남 수교 30년사'를 펴냈다. '베트남 한인사, 개척과 화합의 시대'라는 부제가 붙은 30년사는 1992년 수교 이후부터 30년 동안 베트남에서 온몸으로 부딪쳐 가며 개척하고 화합해 온 한인들이 직접 서술했다. 책은 '시기별 베트남 한인 발전사', '외교·경제·문화·교육·종교 발전사', '하노이 한인회와 기관·단체 발전사', '라이프 스토리 인 하노이', '한국 기업 진출 성공사'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으로, 투자 규모가 7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베트남 한인사회는 15만여 명 규모로 성장했다. 출판기념식은 1월 12일 현지 그랜드플라자호텔 29층에서 열렸다.



## ‘2023년 국내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 2023년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사업 수요조사

신청기간 : 2023. 1.13.(금) ~ 2.16(목) 24:00 까지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국내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내 민간단체 (NGO 등)의 재외동포 관련 교류 및 권익 신장 활성화 사업, 국내 거주 중국 동포 간, 러시아·CIS 동포 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 국내 거주 차세대 동포 한민족 정체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지원대상이며, 오는 2월 16일(목)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http://www.korean.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웹사이트 사업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 2023년 1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 김성곤 이사장

- 1월 5일: 최원식 전 호주한인회 회장 면담
- 1월 6~18일: 일본·미국 출장
- 1월 19일: 다케다 가츠토시 주제주일본국총영사 면담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입니다!



지금 재외동포재단TV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유익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